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학 부 안 내 : 02-944-5000
www.iscu.ac.kr
대학원안내 : 02-944-5500
grad.iscu.ac.kr

최고 교수진
최첨단 23,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콥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2번 출구입니다.

정가 : 5,000원

SCU e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6 Newsletter / Summer vol.33

장기 근속상 수상자들과 이상균 이사장, 허묘연 총장



DT브랜드파워대상



인터넷소통대상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Full HD급 강의 스튜디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SCU WAVE 4.0 e-Learning' 시스템을 통해
장소에 관계없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는 원격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방송국 수준의 Full HD 카메라, 전자칠판, 3D VR 등의 첨단 장비가 만들어내는
'명품 콘텐츠'를 통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강의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부조정실 모습



방송국 수준의 Full HD급 강의 스튜디오

CONTENTS www.iscu.ac.kr

SCU Focus

- 04 서울사이버대학교 개교 16주년
- 06 설립자故 이봉수 이사장 및故 김신영 명예이사장 추도예배
- 07 제13회 신일스승상
- 08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오픈
- 10 2016 스웨덴 데이
- 11 2016 러시아 데이
- 12 2016 이북5도지역회의 자문위원 연수
- 13 서울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
- 14 제17기 이북5도지역회의
- 15 2016 세계총장회의 및 포럼

SCU Today

- 16 학생서비스센터 개설
- 18 제16대 총학생회 주최 스승의 날 행사
- 19 라 바야데르 문화공연 관람
- 20 제16기 하계 해외탐방
- 22 라오스 원격교육 진행 강화
- 24 SCU 멘토링 워크숍 & 멘토성장교육 특강
- 25 SCU WAVE 사회봉사활동

SCU People

- 26 보직변경 교원 & 직원
- 27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On Demand 시스템 개발
- 28 해외명사
- 30 육군본부의 감사패 수령
- 31 방공유도탄사령부, 장선희 발레단 초청 공연 개최
- 32 재학생
- 34 대학원 졸업생

SCU Story

- 36 신일중학교 직업 체험 특강
- 37 심리상담학부 특강
- 38 스티브 김 경영학과 석좌교수 특강
- 39 라르스 다니엘손 주독 스웨덴 대사 특강
- 40 인문학 산책
- 42 SCU 칼럼
- 44 업무협약
- 46 SCU News
- 49 교수동정



2016 Summer vol.33

- | | |
|------|---|
| 발행일 | 2016년 9월 |
| 발행처 | 서울사이버대학교 |
| 편집주간 | 이향아 교수 |
| 편집위원 | 구희정, 김영민, 박병석, 임세희, 정상원, 한수미 교수 |
| 기획편집 |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 944-5255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

신일중·고등학교 개교 50주년 서울사이버대학교 16주년

- 축하와 감사가 가득했던 제16회 개교기념식
- 정영애 부총장 등 8명에게 10년 근속 공로패 수여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을 교육이념으로 지난 2000년 문을 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16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지난 5월 14일(토) 개교 기념식을 개최해 그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축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신일중·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과 서울사이버대학교 개교 16주년을 축하하고자 교내외 귀빈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신일캠퍼스 운동장에서 개교기념식이 거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이 10년 근속 교직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해 개교기념일의 의미를 더했다. 10년 근속 공로패 수상자는 정영애 부총장, 학생처장 전광호 교수, 노인복지전공 박기훈 교수,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 입시홍보팀 김준오 주임, 경영기획팀 노병호 주임,



이상균 이사장으로부터 근속상을 수여받는 구희정 교수



수상을 축하하는 미소를 건네는 허묘연 총장



근속상 수장자들 (아랫줄 좌측부터) 입시홍보팀 김준오 주임, 경영기획팀 노병호 주임, 학생처장 전광호 교수, 노인복지전공 박기훈 교수, 정영애 부총장,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 학생지원팀 유성인 주임, (중앙) 이상균 이사장과 허묘연 총장



국민의례 중인 참석자들



신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으로부터 감사 기념품을 받은 신일고등학교 최경호 교장

학생지원팀 유성인 주임 등 모두 8명으로, 수상자에게는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과 기념패가 전달됐다.

지난 2000년 개교 이래,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 선정(2007년), 사이버대학 역량평가 전체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2013년), 자체 개발 교육 콘텐츠인 ‘SCU Learning WAVE’로 사이버대 최초 e-러닝 국제대회 수상 등 남다른 성과를 거뒀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개교 16주년을 맞이해 국내 최고 사이버대학에서 글로벌 Top 10 사이버대학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갈 것이다.

설립자 故 이봉수 이사장 및 故 김신영 명예이사장 추도예배

故 이봉수 이사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설립기반을 만든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자이다.



故 이봉수 이사장



故 김신영 명예이사장



추도예배에서 축도하는 박종규 목사



추도예배에 참석한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이상균 이사장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린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설립자故 이봉수 이사장과故 김신영 명예이사장을 기리는 추도예배가 지난 5월 14일(토) 신일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신일고등학교 교감 신병철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추도예배에는 이세웅 명예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이 참석해 고인의 뜻과 업적을 함께 회고했다. 예배는 신일학원 이사이자 해방교회 담임목사 박영국 목사의 설교, 이화여대 신지화 교수의 조가, 교목실장 박종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경건하게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고인의 교육 철학과 이념을 이어받아 교육을 통해 세상과 미래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설립자故 이봉수 이사장

설립자故 이봉수 이사장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믿음의 실천과 부의 사회환원을 실현하기 위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양성을 목적으로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법인 신일학원, 신일중·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교육방식인 인터넷을 통해 평생고등교육을 진흥시키는 오늘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설립기반을 만든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자이다.

제13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참스승 평교사 7명 상패와 상금 수상



참스승의 의미 '신일스승상' 이 일깨우다

좋은 교육, 훌륭한 인재 뒤에는 일선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뒤따라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故 이봉수 이사장은 살아생전 교사들에 대한 감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신일학원은 고인의 뜻을 기려 지난 2002년부터 '신일스승상'을 제정해 교사들의 노고와 공적을 격려하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신일스승상은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 공헌도, 사도 실천성, 교육 파급성 등의 심사 기준과 현지 실사를 포함한 심사단계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송고한 교육이념 실천으로
신일스승상을 수상한
교사들에게 수여되는 상패

신일캠퍼스 차이콥스키홀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교사는 모두 7명으로 서울은진초 김동중 교사, 경기 송산초 박문순 교사, 서울 오산중 손하담 교사, 인천동양중 이경란 교사, 서울 원목고 김종남 교사, 서울공업고 김억경 교사, 서울맹학교 장유진 교사이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신일스승상 위원회 정원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일스승상을 통해 훌륭한 선생님들의 숨은 노력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어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신일학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시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다.



신일스승상 시상 장면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밝힌 이경란
인천동양중학교 교사

트렌디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학교법인 신일학원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 학교법인 신일학원 귀빈이 참석한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준공식
- 심리상담센터, 골프존 등 최첨단 시설에 극찬

지난 2015년 7월 10일 첫 삼을 떠 2016년 5월 13일 완공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신일중고등학교의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준공식이 5월 14일 (토) 서울 신일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준공식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이사장, 이상균 이사장, 허묘연 총장 등 귀빈이 참석했으며, 기념 테이프 커팅과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투어 등을 함께하며 최첨단 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특히 이세웅 명예이사장은 모든 공간을 꼼꼼하게 살피며 귀빈들에게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곳곳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는 신일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와 학생, 학생가족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됐다. 내부에는 원룸 18세대, 투룸 18세대, 쓰리룸 1세대 등 총 37세대의 다양한 객실이 완비돼 있으며, 골프존, 심리상담센터, 모래놀이치료교실 등의 최신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날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투어를 통해 다양한 시설을 직접 이용해 본 귀빈들은 높은 만족과 감탄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했다.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준공식 기념 테이프커팅식



SHIN IL LEARNING & ACTIVITY CENTER 외관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의 모래놀이치료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성인상담



스크린 골프장



피아노가 구비된 SHIN IL LEARNING & ACTIVITY ROOM



GUEST ROOM



(좌측부터) 이세웅 한서문화예술협회 명예이사장(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양철호 광주·전남·북지역 명예영사 내외와 이상균 인천·경기지역 명예영사(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상균 이사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한

2016 스웨덴 데이

- 이세웅 한서문화예술협회 명예이사장(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행사에 참석해 자리 빛내
- 이상균 스웨덴 명예영사(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경품 후원

스웨덴 국경일(6월 6일)을 기념해 열리는 ‘스웨덴 데이’ 행사가 올해는 6월 2일(목)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국과 스웨덴 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경기지역을 담당하는 스웨덴 명예영사인 이상균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허묘연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상균 이사장은 공연 관람권을 경품으로 후원해 행사 주최측과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감사를 받았다.

‘혁신’을 주제로 한 2016 스웨덴 데이에서 안 회그룬드(Anne Hoglund) 주한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과 한국은 공히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올해 다양한 혁신 분야에 집중하고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 같은 혁신과 교류는 행사장 곳곳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다. 에릭슨, 볼보, 애플루트 등 스웨덴 대표 기업들은 부스를 설치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아울러 국내에 처음 내한한 스웨덴 예블레 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과 스웨덴 여성교육협회가 재현한 스웨덴의 축제 모습을 통해 활발한 문화 교류도 이뤄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오랜 기간 스웨덴과 맺어온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소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사를 하는 안 회그룬드(Anne Hoglund) 주한 스웨덴 대사



스웨덴 데이 기념 축하 공연



행사에 참석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진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와 임성남 외교부 차관

한국과 러시아의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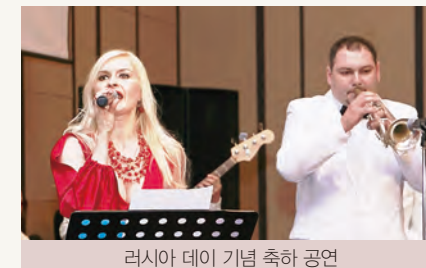
2016 러시아 데이

- 이세웅 한서문화예술협회 이사장(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참석
- 한국과 러시아의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

6월 9일(목) 서울 중구 밀레니엄호텔에서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이 개최됐다. 1991년 옛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라는 국가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고자 러시아는 매년 6월 12일을 ‘러시아의 날’로 제정하여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



이상균 이사장과 박현석 부총장



러시아 데이 기념 축하 공연



만찬을 즐기는 내빈들

다. 이번 기념 리셉션은 국경절을 맞아 한국과 러시아의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이상균 이사장, 이은주 부총장, 박현석 부총장, 정상원 교무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 연방공화국 주권선언 채택 2주년을 맞은 것에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Alexander Timonin)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결의를 지지하지만,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러시아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통해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의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한발 나아가고 있으며, 이세웅 명예이사장은 한러문화예술협회의 이사장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다각적 교류에 힘쓰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이세웅 명예이사장

이세웅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 (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새로운 통일의 길을 함께 모색하다



통일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진행자 김희영 방송인

- 이세웅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 (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2016 이북5도지역회의 자문위원 연수' 참가
- 개회사에서 창의적 접근을 통한 통일 문제 해결 강조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이사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의 '2016 자문위원 연수'가 지난 5월 2일(월) 이북5도청 통일회관에서 진행됐다. 이세웅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통일을 실천적 과제로 놓고 종전과 다른 창의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북5도 자문위원님들이 통일 교육 연수를 통해 남북통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번 연수는 특별강연, 통일토크콘서트, 통일문화공연, 민주평통 업무보고, 전문가 통일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정호 박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이영종 소장, 국제인도법연구회 최은범 대표 등 통일 문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김정은 체제와 북한 정세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나누고 향후 발전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북5도지역회의 자문위원 연수 개회를 축하하는 이세웅 명예이사장



특강을 진행중인 배정호 사무처장

통일의 핵심주체인 여성통일리더를 위한 아카데미를 열다

-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서울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 열려
- 통일의 주변인이 아닌 핵심주체로서의 여성 리더십 재조명

지난 5월 3, 10, 17, 24일 총 4일에 걸쳐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서울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가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서울 지역회의 여성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함께한 이번 아카데미는 건설적인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여성 리더들의 역할과 리더십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영숙 서울 여성분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장소를 비롯해 다양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이세웅 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겸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이번 아카데미가 통일시대에 필요한 서비스 및 통일리더로서 역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서울 여성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강의는 통일실천을 위한 여성리더십, 북한문화를 통해 본 북한의 실상, 북한의 엄중성과 우리의 자세,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등을 주제로 총 4강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재 북한의 문화예술과 정세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 여성이 주변인이 아닌 핵심주체로 적극 앞장설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공유하는 등 다채로운 강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를 하는 김영숙 민주평통 서울 지역 여성위원회 위원장



특강에 참석 중인 여성자문위원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개최된 '서울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 참석자들

이세웅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 ‘창의적인 통일방법’ 모색 강조 제17기 이북5도지역회의

- ‘이북5도민의 소망과 열정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특강
- 연극인 박정자 여사의 시낭송으로 다 함께 통일 염원



이북5도지역회의의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룬 행사장



이북5도지역회의의 기념 축하공연



개회사를 하는 이세웅 이북5도지역회의의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의 부의장으로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 이사장의 주최로 ‘제17기 이북5도지역회의’가 지난 7월 6일(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열렸다.

이세웅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 “우리의 숙원인 민족 통일을 향한 길이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통일을 향한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지만, 통일을 이루게 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며 이북5도지역회의의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호열 수석부의장이 남북관계가 엄중한 시

기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핵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후 이북5도지역회의는 평화통일을 위한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감사패를 증정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한 윤일영 미수복 경기도 대표운영위원의 정책 건의가 있었으며, 이세웅 부의장의 선언을 통해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연극인 박정자 여사가 참석해 이육사의 〈청포도〉,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방시봉방〉 등을 아련한 목소리로 읊조리며 제17기 이북5도지역회의를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박정자 여사의 주도하에 다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2016 세계총장회의 및 포럼 (IAUP Semi-Annual Meeting 2016)

- 세계 대학의 지속적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위한 초석
- 창의적이고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대회



2016 세계총장회의의 및 포럼 참석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알칼라 대학교(University of Alcalá)에서 개최된 2016 세계총장회의 및 포럼(IAUP Semi-annual Meeting 2016)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술대회도 함께 열려 이은주 부총장(IAUP 집행이사 Executive Director), 이완형 입학처장, 오지희 부처장이 우리 대학 대표로 참가했다. 학술대회에는 세계 명문대학의 총장, 부총장 및 대학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20일에는 새인즈(Jorge Sainz) 스페인 교육부 장관, 토랄바(José Manuel Torralba) 마드리드 지방정부의 대학 및 연구국장, 갈방(Fernando Galván) 알칼라 대학교 총장이 한데 모여 총회의의 시작을 알리며 세계 대학의 지속적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21일에는 ‘대학과 문화의 보전: 국제적 도전’과 ‘고등교

육제도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다모다란(Ramu Damodaran) 유엔 대표부, 라몬(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 UNAM 총장, 프리코피(Remus Pricopie)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SNSPA 총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시작됐다. 이들은 대학의 문화교육 및 문화적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보다 창의적이고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문화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뒤이어 라마그나(Carmen Z. Lamagna) 방글라데시 AIUB 총장, 티버리(Daniella Tilbury) 지브랄타 대학 부총장, 가르시아(Fernando León Garcia) 멕시코 CETYS 총장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대학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다.



IAUP 집행이사를 맡고 있는 이은주 부총장



이완형 입학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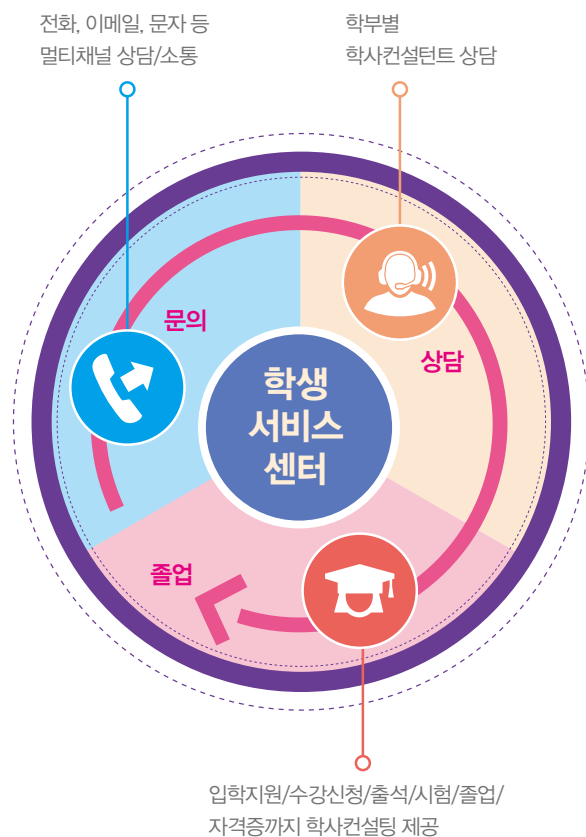


총무처 오지희 부처장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서비스센터(☎ 944-5000)로 배움의 전반을 돕다

- 통합적인 학사일정 지원을 위한 학생서비스센터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과 신입생의 학사 및 학습 활동을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학생서비스센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재학생에게 One-Stop-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하는 학생서비스센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9일 (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생서비스센터를 개설했다. 개설 후 5월 30일 (월)에는 학생서비스센터 학사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만반의 준비를 거쳐 문을 연 학생서비스센터는 최신 통합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이메일, 문자 등 멀티 채널을 활용한 상담과 소통이 가능하며, 전문 교육을 받은 SCU 학사컨설턴트가 입학부



터 졸업까지 학습에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히 전달하고 상담하는 전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학부별 학사컨설턴트가 수강신청부터 출석 및 시험 일정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사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출석이 부진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배움의 길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김지영 센터장은 학생서비스센터 워크숍에서 “학생서비스센터는 상담 및 학사 컨설팅이 기본 업무로, 이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공감과 이해로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2월 1일(목)부터 2017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복지시설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심리·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사회과학학부(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경상학부(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IT·디자인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문화콘텐츠공학과), 문화예술학부(문화예술경영학과, 음악학과(피아노전공)) 등이다. 이번 모집에는 일반전형부터 산업체 위탁생전형, 중앙부처공무원전형, 군위탁생전형, 학사편입전형, 장애인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 마련돼 있으며, 지원서는 입학홈페이지(apply.iscu.ac.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작성 가능하다.



입학설명회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입학설명회와 1:1 입학상담을 진행했다. 입학설명회는 사이버대학 진학과 관련한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학교를 비교·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입학설명회에서는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대학교 유일의 1년 4학기제, 모바일 강의인 스마트러닝, 현장전문가와 연계된 팀 티칭 등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강점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학과의 전임교수와 맞춤형 1:1 입학 상담은 상담만족도가 좋았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입학/진로 관련 질의를 하며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자의 깊은 감사와 스승의 따뜻한 격려가 어우러진 스승의 날 행사



- 제16대 총학생회, 교수님 초청 '스승의 날 행사' 열어
-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오고간 사제의 정



총학생회에서 마련한 스승의 날 기념 행사 참석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제16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 12일 (목) 본 교에서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을 초청해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조재한 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강의라 자주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 또한 커지게 됐다”며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총학생회장의 감사인사에 허묘연 총장은 따뜻한 격려와 덕담으로 화답해 분위기는 한층 훈훈해졌다. 이어서 총학생회가 직접 제작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동영상 함께 시청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교수님들께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종 화기애애했던 스승의날 행사는 학생들로 구성된 통기타 4인조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총학생회에서 마련한 스승의 날 기념 축하 공연



허묘연 총장에게 선물을 건네는 조재한 총학생회장

교직원에게 선사한 문화예술 향연 라 바야데르 (LA VAYADERE)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연 지원
- 문화예술의 후견인이자 전도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공연 출연진들과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교직원과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그간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온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이번에는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공연에 교직원을 초청했다. 3월 30일 (수) 부터 4월 3일 (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 <라 바야데르>는 '발레계의 블록버스터'라 불릴 만큼 국내외에서 크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이번 공연을 감상한 교직원들 역시 특별한 감흥을 경험했다.

이에 앞서 3월 30일(수)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허묘연 총장이 공연 리셉션에 참석해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등 관계자와 화답을 나누며 성공적인 공연을 기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연극, 발레, 뮤지컬 등 폭넓은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고 이를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해 국군장병, 미8군 장병과 가족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향유해 왔다.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문화예술의 후견인이자 전도사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라 바야데르 리셉션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과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ATCS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수상자 연맹)안드레이 셰르박 이사장



제16기 하계 해외탐방 참가자들

아시아의 유럽, 홍콩에서 펼쳐진 서울사이버대학교 제16기 하계 해외탐방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하계에 진행된 제16기 해외탐방 참석자들은 세계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지인 홍콩에 다녀왔다.

6월 22일(수)부터 25일(토)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하계 해외탐방의 모습을 SCU e아기에 담았다.



홍콩 역사박물관에서 전통의상 체험



청동좌불상 입구



해외탐방 오리엔테이션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재숙

해외탐방에 참여했던 학우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 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어서 한층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공 최해식

학생의 신분으로 넓은 안목과 글로벌한 인재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학교행사에 참여하여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제16기 하계 해외탐방 후기

상담심리학과 최정안

이번의 홍콩탐방의 시간은 묵묵히 혼자만의 공부를 즐겨오던 나에게 일상에서의 탈출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만난 학우들과의 연대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복지전공 박명숙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해 보니 어려움도 많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었지만, 해외탐방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탐방' 프로그램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해외탐방' 활동이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와 교무처 이근영 팀장의 인솔하에 재학생들이 각국의 문화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해외 견문을 넓히고, 창의적이며 열린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해외탐방은 그동안 일본, 캄보디아, 중국, 호주,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타이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를 거치며 매년 이어져 왔다. 학생들은 해외탐방에 앞서 6월 11일(토) 본교 B동 104호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일정 및 안전한 해외탐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탐방 참여자들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전광호 학생처장은 "매년 진행되는 해외 역사문화 탐방활동이 우리 재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추후 창의적 비전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해외탐방 활동 외에도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교육의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

이번 해외탐방에는 총 26명의 재학생들이 다양한 탐방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재학생들은 청동좌불상 등 홍콩의 대표적인 역사유적물을 관람하고, 홍콩 10대 명소로 꼽히는 윈타이신 사원, 치린 수도원 등을 둘러보았으며, 현지 대학을 방문해 다양한 교류활동도 진행했다.

보다 자세한 해외탐방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참여 재학생들의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탐방 프로그램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탐방 참석자들은 단순 해외 문화유적지 기행 및 여행을 넘어 방문 지역의 낙후한 시설 보수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국경을 넘는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탐방의 봉사활동 연혁

제9기 해외탐방-베트남 보육원 아동 돌봄 및 사랑의 집짓기
제11기 해외탐방-캄보디아 학교 우물파기 및 보육원 아동 돌봄
제13기 해외탐방-베트남 특수 아동시설 장애우 돌봄
제15기 해외탐방-베트남 보육원 아동 돌봄 및 사랑의 집짓기



서울사이버대학교, 라오스 원격교육의 기틀을 세우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원격교육전문가 양성



- 라오스 정부, 교육 접근성 높이고자 원격교육 강화에 나서
- 현지방문을 통해 거점지역별 시범콘텐츠 성공적 개발



2주차 지역연수 원격개회식에 참여한 사바나킷 주 교육청 관계자



스토리보드작성 연습 중인 수석교사 연수생



행동계획을 논의하는 팀별 활동



연수 개회식에 참석한 내빈 및 연수생

“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3년간 라오스
정부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고자
원격교육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원격교육 사업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콘텐츠개발팀 최준성 팀장(좌), 산학협력단 오빛나(우)연수평가회에서 개선의견 및
제안을 발표

라오스 정부는 2006년부터 교육개혁을 통해 초등무상교육을 실현했으나, 농촌 및 원거리지역 학생들의 높은 중도포기율과 낮은 중등과정 진학률로 인해 교육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대안으로서 원격교육을 채택하였다. 이에 한국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왔고,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라오스 원격교육 강화사업을 실시했다. 라오스는 도시를 제외한 전국 1만 553개 마을 중 20%가 초등학교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타파하고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전문가들은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열흘간 현지를 방문해 지역거점 도시 ICT 센터에서 지방의 교사와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지식확산전략을 전수했다.

1주차(5. 24~26) 연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전문가들이 현지 강사진에게 분야별 고급교육 및 워크숍 운영방법론 위주로 이루어졌다. 2주차(5. 30~6. 2) 연수는 북부의 거점도시인 루앙프라방, 중남부 핵심산업 지대가 있는 사바나킷, 남부의 참빠삭에서 이러닝의 이해부터 콘텐츠 개발 실습에 이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지 강사진이 주도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전문가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했다. 특히 2주차에는 라오스 교육부의 직할 ICT 센터와 3개 거점지역의 ICT 센터를 인트라넷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회식을 거행하는 등 원격교육 활성화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서울사이버대학교 연수 결과로 라오스 거점지역별로 총 6개 과목의 교육정보화 및 원격교육 정책과 전략계획이 수립되었고, 12종의 시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은 물론 라오스 원격교육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122명의 원격교육전문가들이 양성됐다. 올해 실시한 연수를 통해 라오스 거점지역별로 2개 과목, 총 6개 과목의 시범콘텐츠가 추가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라오스 교육부 측 책임자인 쑤키앗 파시(Somkiat PHASY) ICT 국장은 폐회사에서 “이러닝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라오스 원격교육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이제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2단계 도약을 위해 양측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며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본 연수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후속사업의 지원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멘토를 넘어 최고의 멘토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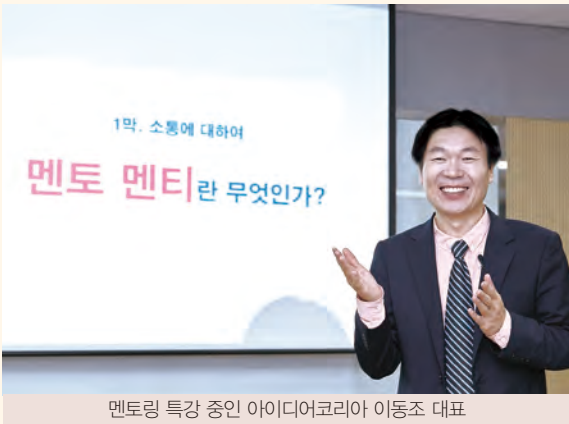
SCU 멘토링 워크숍 & 멘토성장교육 특강



2016학년도 1학기 SCU 멘토링 워크숍 참석자

- 멘토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방향 제시
- 멘토링 활동의 실천 노하우 공유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멘토링 워크숍과 멘토성장교육 특강 등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멘토링 특강 중인 아이디어코리아 이동조 대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4월 2일(토) 본교 A동 국제회의실에서 '2016학년도 1학기 멘토링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생처에서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총 42명의 멘토가 참여했으며,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한 멘토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멘토링 참여자들의 역량 증진과 멘토링 이해를 돕기 위해 '좋은 멘토를 넘어'란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5학년도 우수멘토로 선정된 김정언 학우는 '멘토링 운영방법 및 체험기'를 발표해 멘토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학생처 유성인 주임이 진행한 질의응답시간에는 멘토들이 실전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5월 21일(토)에는 이동조 아이디어코리아 대표가 진행한 멘토성장교육 특강이 이어졌다. '멘토활동, 성공을 부르는 마술피리'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날 특강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멘토활동의 의미와 노하우를 되짚어 보았다.

작은 나눔으로 큰 울림을 전하는

SCU WAVE 사회봉사단



따스한채움터 무료급식 배식 봉사활동

노숙인 무료급식 및 서울역 인근 환경미화 봉사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지난 4월 26일(화) (사)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공동으로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서울역 근처 환경미화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역 따스한채움터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에는 전광호 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조재한 총학생회장 등 학생 30여 명이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전광호 학생처장은 "SCU WAVE 사회봉사단을 통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희망나눔봉사센터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직접 구운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31일(화)에 중랑노원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빵을 전한 것이 아니라, 3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빵을 굽고 정성껏 포장해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해 그 의미가 한층 뜻깊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를 위해 2011년에 창립된 SCU WAVE 사회봉사단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상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보직으로 학생들의 편리한
학습환경에 힘쓰는 교원 및 직원 5인을 만나
새롭게 수행하게 될 보직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서비스센터
박용원 부처장

평생교육원 박용원 부원장이 학생서비스센터 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 학생서비스센터는 학부별 학사 컨설턴트를 통해 학사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수강신청부터 출석 및 시험 관리, 졸업정보 등을 학생에게 미리 알려주며, 출석이 부진하거나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박용원 부처장은 온라인 교육 환경이 낯선 학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학원 부원장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권금주 교수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권금주 교수가 대학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대학원은 자주적이고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고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권금주 교수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무처
오지희 부처장

최근 새롭게 구성된 총무처의 부처장으로 비서실 오지희 부처장이 임명되었다. 총무처는 대외적으로 학교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외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오지희 부처장은 총무처를 대표하여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 설 예정이다.



학생서비스센터장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가 학생 편의를 위해 새롭게 개설된 학생서비스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학생서비스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SCU 학사 컨설턴트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습에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히 전달하고 상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영 교수는 학생서비스센터가 학생들의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군교육지원센터 및 평생교육원
김성철 팀장

총무팀 김성철 팀장은 군교육지원센터 및 평생교육원의 팀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군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군 교육 맞춤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군 관련 협력 연구 사업, 군인 재학생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설, 군인 재학생 교육 및 서비스 강화 업무를 진행한다.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발, 전체 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 등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SCU Wave On Demand 시스템 개발

- 군교육지원센터와 평생교육원,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홈페이지 운영 가능해져
- 일반 학생뿐 아니라 군에 최적화된 맞춤 교육 지원·운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 서비스의 확장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군교육지원센터와 SCU 평생교육원이 공동으로 SCU Wave On Demand 시스템을 개발했다.



군교육지원센터 <http://mil.iscu.ac.kr>



평생교육원 <http://edu.iscu.ac.kr>



이정원 군교육지원센터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본교 교육철학의 연장 및 확대, 교육 서비스의 확장 및 유연성 확보, 다양한 교육 모형의 수용을 위해 SCU Wave On Demand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은 ASP형 학습관리시스템, 콘텐츠관리시스템, 평가시스템, iOS, Android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형 앱 개발로 모바일 전용 콘텐츠 재생 지원 및 학습이력을 관리하는 LMS 등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관리시스템 개발로 타부서에서 담당하던 기존 홈페이지와 달리 담당자가 직접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서영수 평생교육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갖춘 최상의 교육인프라가 엘살바도르의 교육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
밀턴 알시데스 마가냐 특임대사

한국에 부임하신 지 1년여 정도 되셨는데, 부임 후 한국에 대해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이룬 산업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러한 빠른 속도의 산업화에도 전국에 문화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존된 문화재 외에
도 한국의 음악과 전통 음식, 역사 등 인상 깊은 분야들이 많습
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창의적인 발상, 발달한 교육 문화 등
도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어떤 나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엘살바도르는 21,041km²(한반도의 1/10)의 면적에 인구 약 660
만 명에 이르는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입니다. 에콰도르와
인접해 있으며, 고온 다습한 적도 기후의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
다. 현재 개발도상국으로서 주요 산업은 커피, 설탕, 섬유, 의복,
제약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
해져 이를 극복하고자 교육과 인력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는 밀턴 알시데스 마가냐 대사

한국과 엘살바도르 양국관계는 어떤가요? 대사님 재임 중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중점을 두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엘살바도르와 한국은 1962년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고위정부인사들의 상호방문과 통상협력으로 더
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지금도 29개의 한국기업이
엘살바도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한국-
중미 간 자유무역협정 협의를 착수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교류도 진행되어 현재 25명의 엘살바도르 학생이 학
석사과정으로 한국에 유학 중입니다.

저는 교육적 맥락에서 양국 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 교수
와 학생교류, 공동세미나와 연구 활성화 등 교육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엘살바도르에도 K-pop이나 드라마, 영화 등 한류가 불고 있는
지 궁금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돌그룹의 공연을 통해 K-pop
이 잘 알려져 있고 드라마나 영화는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창
의적 주제와 구성이 돋보여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
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인상 깊게 봤는데, 남
북 간 정치와 군사적 관계를 잘 투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
가 간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통한 교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유대와 문화적 연결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둘러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서울사이
버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설립자의 비전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
았고,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시대에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사
이버대 (ACU) 프로젝트를 통해 국경을 넘어 이러닝 기술지원과
인력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
교는 최상의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시아권에 있는 사이
버 대학 중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엘살바도르에도 이러한 교육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엘살바도르도 ICT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력양성을 국가 주요정
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닝의 발전에 잠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
다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엘살바도르의 교육, 특히 이러닝 분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엘살바도르도 최근에 이러닝을 도입하였습니다. 2015년에 엘살
바도르 국립대학이 석사과정에 온라인수업방식을 시범적으로 도
입하였고, 사립대학인 엘살바도르 공과대학은 온라인 학사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비정규교육으로서 2년
제 고교졸업과정에 원격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
니다. 그렇지만 기술적, 질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엘살바도르 대학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
해 지난 15년간 축적한 이러닝 기술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환경의 발전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묘연 총장 육군본부 감사패 수령 제2회 ‘육군에 도움을 주신 분들’ 40인에 선정

- 육군본부와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공로 인정 받아
- 감사패 수령과 함께 육군본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약속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이 지난 6월 16일(목)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마련한 ‘육군에 도움을 주신 분들’ 초청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201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육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육군을 도와준 40명의 고마운 분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다. 이날 허묘연 총장은 그간 육군본부와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해온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하여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그동안 육군본부와 MOU를 맺으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 또한 군과 경찰 분야에 특화된 심



허묘연 총장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수령한 감사패

리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군경상담학과를 운영해 왔으며, 2015년에는 군인 재학에 대한 학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군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전체 재학생 중 약 10%인 1,200여 명이 군인으로, 군인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군인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육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군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군인을 위한 문화 공연 지원 장선희 발레단 초청 공연 개최

-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발레화한 <돈키호테>, 발레단과 군부대가 합동 공연 펼쳐
- 장병·군무원·군 가족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문화 공연 후원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대표단



장선희 발레단과 기념촬영



<돈키호테> 공연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6월 28일(화)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해 장선희 발레단 초청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오산기지 장병, 군무원 및 군가족을 대상으로 선보였으며, 허묘연 총장과 군교육지원센터 이정원 센터장(군경상담학과 교수), 입학처 구국모 실장, 군교육지원센터 김성철 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르반테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발레로 재탄생한 <돈키호테> 공연은 방공유도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군부대와 합작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돈키호테> 공연 후원을 통해 군부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군에 문화공연을 선사해 장병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문화 활동이 어려운 군인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군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북돋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군부대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상학부

막연했던 진로 고민

세무회계학과를 만나 사라졌습니다

한정호. 세무회계학과 1학년

이 길이다 믿었던 진로에 대한 좌절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죠.

학창시절 회계에 재미를 느껴 회계 관련 경진 대회에서 수상은 물론 적지 않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회계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취업준비 당시 대기업 회계직만 지원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면접에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밝은 성격과 남다른 친화력을 가진 저는 사무직보다는 영업직에 어울린다는 판단에 한국담배인삼공사(KT&G)에 지원하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판매점주들을 만날 일이 잦은데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계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들이 실무능력을 배양해주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해 주었고, 저 역시 세무와 회계 모든 과목 강의를 100% 현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인 교수님들이 도맡는다는 사실에 망설임 없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세무회계학과는 1인 2자격증 운동으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합니다.

우리 학과는 저와 같이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은 재학생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격증 Intensive Course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까지 1인 2자격증 운동을 추진하며 자격증 취득을 독려합니다. 국내 최대 합격률을 보장하는 전문 학원 교수님이 이론, 실무, 문제풀이, 자격증 취득 노하우 등을 강의해 주시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세무회계학과와 또 다른 강점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준비하는 재학생이라면 1:1 멘토링 제도를 통해 회계사, 세무사 교수님께 현실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대학생생활은 힘들음 넘어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1학기를 보내고 나니 보람도 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재학생들이 있기에 큰 위안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학과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 MT 이후 재학생들과 돈독한 친목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무회계학과에서 청년국장을 맡고 있으며, 임원회의 등의 모임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회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시다면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문화예술학부

못다 이룬 꿈에 도전,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지수. 음악학과 1학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못다 이룬 꿈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무척이나 감격스럽지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저는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반주를 하거나 취미로 피아노를 치긴 하지만, 이론적 지식이 없으니 스스로 한계와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워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와중에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만족하는 점은 자신에게 맞춰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학습 효과가 높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필요하다면 온라인 강의를 다시 듣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등 자신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죠.

시험기간이면 평가를 하는 동시에 평가를 받는 학생이 되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시험기간이 되면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생으로서 교수님께 평가를 받게 되니까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죠. 이처럼 시험기간이 겹칠 때는 정말이지 정신이 없습니다. 미리 미리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죠. 처음 학교에 진학했을 때 '매일 강의 하나는 꼭 듣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하루 이틀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면 금세 나태해져 한 번에 여러 강의를 몰아서 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자연히 부담감이 커지죠. 학업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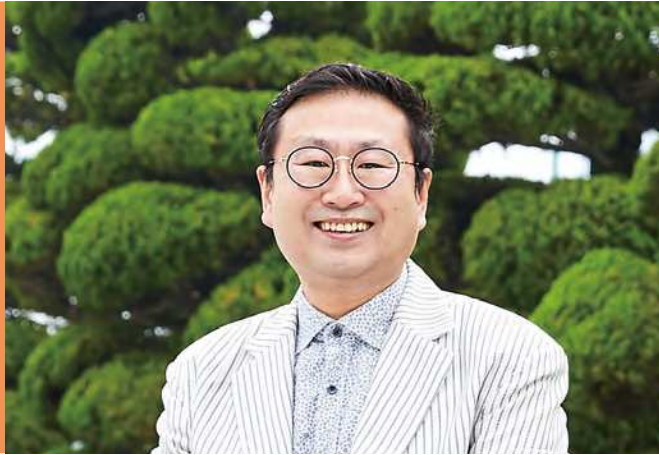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시스템은 온라인상의 한계를 뛰어넘죠.

진학 전만 해도 '사이버대학에서 피아노 실기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학교임에도 캠퍼스가 있고,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습실까지 마련돼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저명하신 교수님들께서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하여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1:3 소규모 레슨, 그룹레슨, 마스터클래스의 기회도 주어지기에 우리 대학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채로운 배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싶어 상담심리전공...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기환



청소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서울사이버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중소기업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적성과 상관없이 취업해서 인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돈 벌이를 위한 직장생활로 지쳐가던 중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강사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 청소년들의 적성과 성격에 맞는 맞춤 진로컨설팅을 하고 싶어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상담심리대학원이 개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1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현재 한국티스타에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위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컨설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방황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상담을 통해 진로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보람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덕분에 전문 상담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상담심리대학원은 원생이 어떠한 분야의 전문 상담사로 성장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상담사가 지녀야 할 소양과 지식을 잘 전달해 주어 전문 상담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우들과의 자유로운 화상 회의와 스터디가 가능해 사이버대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도 서울사이버대

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대에 다니면 혼자 공부한다는 느낌 때문에 지칠 수 있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서 그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상담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준 ‘상담심리대학원’ 고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이버대학의 장점일 것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상담심리대학원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져 전문 상담사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서 진행한 인턴십은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 상담사로 활동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모임과 원우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닌 혜택을 통해 진정한 상담사로 거듭나 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상담심리대학원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져 전문
상담사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함께 나누고파 사회복지전공...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임계희



노후준비를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30년 이상 금융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투자와 보험, 상속설계 등 재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강의, 방송, 집필 활동도 하고 있죠.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 중에는 복지 대상자인데 복지정책이나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 역시 방법을 모르니까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사회복지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저에게는 딱 맞다 싶어 수업을 듣게 됐죠. 처음에는 생소한 분야라서 벅차기도 했는데 알수록 관심도 깊어지고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교수님 및 원우와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높은 학점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재무상담을 하면서 복지상담 역시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복지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국내 거주하는 시니어들이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와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Seniors & Youth (SAY)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

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연구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시니어연구회를 만들어 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고령화 관련 정책, 이슈, 학술 연구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노인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 등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기 전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의문이 드는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힘이 들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노인생애체험센터를 방문해 각종 장비를 착용해 보고 80세 이후 노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가상체험하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실현을 더욱 깊이 각성하였습니다. 시니어연구회의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노인생애를 체험 중인 시니어연구회 회원들

신일중학교 학생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서 주최한 미래 직업 세계를 체험하다

- 신일중학교 학생들, 직업 체험 현장 참석
- 사회복지전공 심선경 교수, 경영학과 고운승 교수의 특강으로 교수의 직업 세계 체험



미래 직업 세계 체험 특강을 진행한 심선경 교수와 신일중학교 학생들



온라인 강의를 진행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학생들



직업체험 특강을 듣고 있는 신일중학교 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이향아 교수(학부장), 차명희 교수(학과장), 김지혜 학과조교))는 지난 5월 3일(화) 교수를 꿈꾸는 신일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및 특강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된 직업체험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신일중학교 학생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캠퍼스 투어를 통해 미래 직업 환경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경영학과 고운승 교수와 사회복지전공 심선경 교수의 특강을 통해 교수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교수직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운승 교수는 특강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정하고 정진하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발전된 모습으로 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정확한 진로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강연한 심선경 교수는 “교수는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며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학생들은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심리상담학부 특강

- 성격강점검사 체험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 넓혀
- 자기 이해와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게 한 미술치료



심리검사 특강을 진행한 김지영 교수와 참석자



특강을 진행중인 이우경 교수



미술치료 특강을 진행한 강사와 김지연 학과장 및 참석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에서는 지난 6월 11일(토) 재학생 및 2016학년도 하반기 입학지원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특강 1 : 성격강점검사를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는 심리검사에 대한 이론과 실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성격강점검사를 체험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 특강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개인별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은 물론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어 지난 7월 9일(토)에는 이우경 교수가 '심리검사 특강 2 : 스토리텔링과 주제통각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강을 듣기 위해 약 100여 명의 참석자가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를 찾았으며, 직접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특강을 수강했다. 이번 특강은 올해 3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의 대표적인 상담 및 임상 실습 프로그램인 '2016 SCU 심리상담학부-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본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진들이 꾸려나간다.



스티브 김 경영학과 석좌교수 행복한 삶의 결정 ‘만남’을 주제로 특강



특강 중인 스티브 김 석좌교수

- ‘아시아의 빌 게이츠’ 스티브 김 교수의 명강의
-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특강 형식

지난 4월 23일(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행복한 삶의 결정-만남’이라는 주제로 스티브 김(한국명 김윤중) 교수의 특강을 개최했다.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를 창업해 성공을 일구어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김 교수는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와 꿈희망미래 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나눔 실천에 힘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꿈, 희망, 미래-아시아의 빌 게이츠 스티브 김의 성공신화〉, 〈스티브 김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강의를 펼치고 있다.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이번 특강의 취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일반인도 들을 수 있는 오픈특강을 개최했다”며 “김 교수의 특강은 참석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특강에 걸맞게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www.iscu.ac.kr)에서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다양한 청중이 유익한 시간을 공유했다.

스웨덴 외교 대가가 본 국제정세 주독 스웨덴 대사관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 특강

- 특강 통해 교직원의 국제 동향 시각 길러
- 브렉시트 사태에도 국제 경제시장 낙관적으로 예상



특강을 듣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들



특강 후 다니엘손 대사에게 질문을 건네는 권구순 교수



라르스 다니엘손 주독 스웨덴 대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6월 27일(월) 주독 스웨덴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를 초청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세계에 끼친 영향과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는 지난해 8월 주독 스웨덴대사를 맡기 전 주한 스웨덴대사를 역임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또한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한 지한파 외교관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어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방문한 이번 방한 일정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 후의 국제 정세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한국도 브렉시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지금과 같은 발달된 교육문화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특강에 모인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에게 “미래는 여러분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 힘쓰는 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사의 특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양 음악철학의 근본을 찾아서

박병석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
중화민국 국립정치대학 정치학박사



사서오경 중 하나로 서한(西漢, 202BC-8) 때 대성(戴聖)이 전국시대(475-221BC) 이래의 음악론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예기(禮記)> ‘악기(樂記)’ 편은 동양 최초의 음악철학문으로서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이기도 하다. ‘악기’ 편은 성(聲), 음(音), 악(樂)이라는 세 개념을 근거로 음악과 우주, 도덕 및 정치와의 관계를 논했다. 성음악(聲音樂)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나 성(聲)은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리어 귀에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소리’, 음(音)은 ‘소리의 높낮이’가 같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을 의미하는 ‘가락’, 악(樂)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

정을 나타내는 예술’인 ‘음악’ 또는 ‘가악(歌樂)과 연극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악극(樂劇)’을 의미한다. 즉 악(樂)은 노래와 연주와 무용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음악을 가리킨다.

‘악기’는 음악의 기원과 본질 및 음악과 정치의 관계를 다룬 악본(樂本), 음악의 근원을 다룬 악론(樂論), 음악과 예의 관계를 다룬 악례(樂禮) 등 11개 장으로 구성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첫째 장인 ‘악본(樂本)’을 발췌 번역 소개한다.

악본(樂本)

무릇 (노랫)가락(音)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긴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사물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사물

에 느낌을 받아 움직이면 소리(聲)로 나타난다. 소리가 서로 호응해 변화가 생기는데, 변하여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되면 이를 가락이라 한다. 가락에 따라 연주하고 여기에 방패와 도끼를 사용하는 무무(武舞)나 꿩깃과 소꼬리를 사용하는 문무(文舞) 춤을 곁들이면 이를 음악(樂)이라 한다.

음악은 가락으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그 근본은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느낌을 받은 데 있다.

그러므로 슬픈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는 다급하게 사라지며,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는 후련하여 느긋해지며,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는 나면서 퍼져나가며, 노여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는 거칠게 사나워지며, 존경의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는 곧게 청렴해지며,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는 온화하여 부드러워진다. 이 여섯 가지는 타고난 마음, 즉 성(性)이 아니고, 사물을 느낀 뒤에 움직인 것이다. 때문에 선왕은 느낌을 주는 것을 신중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선왕은) 예로 사람들의 뜻을 이끌었고, 음악으로 사람들의 소리를 조화롭게 했고, 정치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했고, 형벌로 사람들의 간악함을 막았다. 예악형정(禮樂刑政)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민심을 같게 만들어 통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릇 가락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 소리에 나타난다. 소리가 악장(樂章)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가락이다. 그렇기에 치세의 가락은 안락하여 즐겁고, 그 정치는 조화롭다. 난세의 가락은 원망하여 분노하고, 그 정치는 어

그러져 있다. 망국의 가락은 비통하여 구슬프고, 그 백성은 곤궁하다. 소리와 가락의 도는 정치와 서로 통한다.

무릇 가락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음악은 인륜 및 이치와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알지만 가락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며, 가락은 알지만 음악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서민이다.** 오직 군자만이 음악을 안다. 따라서 소리를 살펴서 가락을 알고, 가락을 살펴 음악을 알고, 음악을 살펴 정치를 알면 통치의 방법은 완비된다. 따라서 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그와 더불어 가락을 논할 수 없고, 가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그와 더불어 음악을 논할 수 없다. 음악을 알면 거의 예에 이른 것이다. 예와 음악을 모두 갖춘 것을 유덕(有德)이라 한다. 덕이란 얻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조용한 것은 하늘이 내린 타고난 마음(天性)이며, 사물에 미혹하여 움직이는 것은 타고난 마음(性)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물이 이르면 알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호오가 모습을 드러낸다. 호오가 안으로 절제되지 않고 바깥의 꼬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반성하지 못하면 천리(天理)는 없어진다. 무릇 사물이 사람에게 느낌을 주는 것은 끝이 없고, 사람의 호오가 절제가 없다면, 사물이 이르면 사람이 사물이 된다. 사람이 사물이 된다면 함은 천리를 없애고 인욕을 다 부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패역과 사기의 마음이 생기고, 음탕과 작란(作亂)의 사고가 일어난다. 그리하여

강자는 약자를 으르고, 다수는 소수를 해치고, 유식자는 무식자를 속이고, 용맹한 자는 겁쟁이를 괴롭히고, 질병은 치료받지 못하고, 노인과 어린이와 자식 없는 사람들이 몸 둘 곳을 얻을 수 없는데, 이것은 바로 대란으로 가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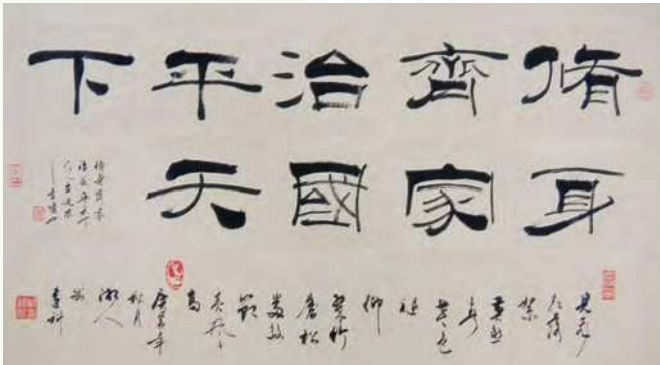
이런 까닭에 선왕은 예악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절제토록 했다. … **예로 백성의 마음을 조절하고, 음악으로 백성의 소리를 조화롭게 하고, 정치로 그것(예악)을 시행하고, 형벌로써 그것(대란)을 막았다(禮節民心, 樂和民聲, 政以行之, 刑以防之).** 예악형정 이 네 가지가 달성되어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왕도(王道)는 완비된 것이다.

평설: 고대 동서양 음악의 역할과 기능

동양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예절과 음악, 즉 예악(禮樂)이 주요 수단이었고, 형정(刑政)은 사후적이고 지엄적이었다. 예를 통해서는 질서를, 악을 통해서는 조화를 추구했다. ‘악기에 따르면’ ‘악은 같음을 추구하고, 예는 다름을 추구한다(樂者爲同, 禮者爲異.)’ 했고 ‘음악은 천지의 조화이고, 예는 천지의 질서이다. 조화로우면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질서가 잡히면 만물이 모두 구분된다(樂者, 天地之和也; 禮者, 天地之序也. 和, 故百物皆化; 序, 故群物皆別.)’ 했다. 그리고 ‘음악은 민심을 개선할 수 있고, 사람들의 풍속을 개량할 수 있다(樂也者, 而可以善民心, … 其移風易俗.)’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음악의 정치가 실현되면 ‘포악한 백성이 생기지 않고, 제후가 복종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형벌을 쓰지 않으며, 백성은 우환이 없으며, 천자는 분노하지 않는’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보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철학과 ‘악기’의 음악철학은 각각 우주론으로서의 Harmonia론과 화론(和論), 도덕론으로서의 Ethos론과 교화론

또는 이풍역속론(移風易俗論), 정치론으로서의 이상국가론과 치천하론(治天下論)이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 악기로부터 음악치료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악기’는 ‘간교한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면 반역의 기운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 음란한 음악이 흥한다. 바른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면 순조로운 기운이 그에 반응하고; 순조로운 기운이 모습을 드러내면 조화로운 음악이 흥한다(凡奸聲感人, 而逆氣應之; 逆氣成象, 而淫樂興焉. 正聲感人, 而順氣應之; 順氣成象, 而和樂興焉.)’고 했다. ‘악기’의 음악철학에 의해 만들어져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우리 국악(國樂)이 지금까지 산모의 심장박동과 일치한다고 하여 태교의 근거가 된 모차르트 효과(Mozart Effect)보다 높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점에서도 동양 음악철학의 모태인 ‘악기’와 이에 기초한 동양음악, 특히 국악의 가치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작자 臧遠科

UN평화활동의 원칙과 규정에서 본 〈태양의 후예〉옥의 티

권구순 교양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관계학박사



지난 2월에 방영된 TV 미니시리즈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의 열기가 대단하다 못해 폭발적이었다. 배우들의 뛰어난 외모와 감미로운 OST, 그리고 액션과 멜로가 적절히 어우러진 구성 덕분에 남녀시청자들을 모두 유인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에 태후 신드롬을 일으켰다. 가족과의 공통된 관심사(?)를 만들기 위해 가끔 드라마를 보긴 하지만, 이번 태후는 과거 분쟁국가인 이라크(2007년)와 라이베리아(2010년)에서 평화구축업무를 수행했던 개인적 경험 때문에 본방사수를 하면서 매의 눈으로 시청했다. 그러다보니 드라마 중반부에서 주요무대가 되는 가상 국가 ‘우르크’ 촬영분에서 UN평화활동에 적용되는 원칙과 규정의 관점에서 몇 가지 옥의 티를 발견하게 됐다.

첫째, UN평화임무단 영내에 민간인은 체류할 수 없다. 드라마에서는 해성병원 의료팀이 우르크 주둔 파병부대 영내 메디쿠브시설에 함께 머무르면서 아침마다 비둘기들(?)의 알통구보를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로 UN소속이 아닌 민간인이 UN임무단 영내에 방문은 할 수 있어도 숙박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정부 평가단과 같이 공무로 방문 시는 예외로 영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체재가 가능하다. 더불어 유시진 대위가 강모연 선생을 UN의 공무차량에 태워 테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규정상 UN 차량에는 UN소속요원과 평화유지군 이외의 외부인을 탑승시키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둘째, UN평화유지군의 무력사용은 자위 차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유시진 대위는 전직 미국 특수부대 지휘관이자 무기밀매업인 아구스와 갈등구조를 형성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극중 유대위는 아구스를 향해 총을 겨누기도 하고 결국 비밀작전으로 교전 중 그를 사살하게 된다. 또한 아랍의장의 후송치료 중 수술문제로 경호원들과 총구를 겨누며 대치하는데 이는 교전수

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UN평화유지군은 그야말로 평화유지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교전수칙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아구스와 같은 인물이 실제로 평화유지임무 현장에 있다면 정식절차에 의거 UN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범법행위가 있다면 체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셋째, 무력충돌이나 재난발생, 긴급 인도적 지원 시 군 인력이나 자산 활용은 최후의 보루(Last Resort)다. 극중 우르크의 지진은 유시진 대위와 강모연 선생, 서대영 상사와 윤명주 중위를 다시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지진이 발생하자 국내로 복귀한 알파팀이 재난현장에 급파돼 몸을 사리지 않는 구호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어떨까? 대규모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UN을 비롯해 국제적십자 조직과 같은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개시할 것이다. 또한 주요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중앙 119구조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협력단의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를 72시간 내 급파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차원의 구호활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오슬로 가이드라인(Oslo Guideline) 준수**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옥의 티도 극중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태후의 히어로 유시진 대위와 서대영 상사, 그리고 항상 위험에 노출된 그들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봐주며 사랑을 지켜가는 강모연 선생과 윤명주 중위가 있기에 용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드라마를 시청하며 그런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가 가족에게 핀잔만 들으면서 적어도 시청자들에게 태후는 UN평화활동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편, 현재 레바논 남부와 남수단 보르지역에서는 분쟁 후 평화재건을 위해 파병된 400여 명의 한국군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곳에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또 다른 유시진 대위와 서대영 상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땀과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다.

미운 오리새끼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중요성

남상규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발전추진단 실장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독 큰 알에서 태어나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위 오리들에게 놀림을 당하던 미운 오리가 알고 보니 백조였다는 내용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는 1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주인공인 미운 오리가 **고등교육 정책에서 소외당하는 사이버대학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이버대학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방송통신대학 등과 함께 원격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웹상의 강의실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진다. 2001년 처음 설립되어 16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 **개교 당시 9개 대학 6220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사이버대학은 현재 21개 대학, 총 10만 2654명**으로 **학생 수가 약 17배 증가**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으며, 2010년부터 9개 대학에서 16개의 특수대학원을 설치하고 **석사 학위자를 배출하는 등 질적으로도 진일보**했다. 지난 16년간 변변한 정부 재정지원 없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에 더욱 값진 성취라 하겠다.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의 수가 2001년 37만 661명으로 정점을 친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 2015년에 13만 3,385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사이버대학은 **경력단절 없는 일과 학습의 병행,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인식의 변화,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과 유연한 교육 기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도입** 등의 영향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단 1원도 없으며, 사업 참여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PRIME, LINC, CK, ACE, CORE, WCC 등 이름을 다 외우기도 어려운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총 3조원에 가까운 돈을 기존 일반대학에 지원하는 것과 대비된다.

재정지원은 둘째 치고 **의무기록사 자격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가지 법령의 수혜대상에서 사이버대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 기회에 소외된 이들에게 **낮은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온 대한민국 **교육복지의 첨병**이며 **사회 간접자본**이다. 또한 이러닝 분야에서 지난 15년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교육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솔루션**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앞선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면서 **대한민국 교육한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도** 교육부 주관의 유일한 고등교육 ODA 사업인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으로서 2011년부터 금년 초까지 아세안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역할만큼의 대접은 아니라도, 조금의 지원과 간단한 격려만으로도 사이버대학들은 힘을 얻고,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독특한 히트상품인 사이버대학을 제도적·사회적 무관심으로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사이버대학 역시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 특성화에 대한 노력 부족, 수요가 많은 학과 개설로 인한 동형화 등에 대한 지적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이 동화와 같다면 중국에는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라는 긍정을 품고, **오늘도 10만 재학생의 제2의 도전을 돕기 위해 사이버대학 교직원들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운 오리새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듭날 것을 꿈꾸면서 말이다.

『한국대학신문』 2016년 7월 3일 게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상생과 교류의 문을 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다문화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한국청소년재단, 한국드론산업협회, 새조위, 듀오결혼정보 등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URL: 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박배륜 인재개발원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5월 23일(월) 본교 B동 105호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상호 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 박현석 부총장 등이 함께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박배륜 인재개발원장, 김홍진 스마트워크 추진자문위원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이 상호 발전과 상생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향후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환담을 나눈 이후 학교소개 동영상을 함께 관람한 양측 대표는 협정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협약식을 마무리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URL: kmcyouth.or.kr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박옥식 이사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4월 20일(수) 본교 B동 104호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는 국제결혼과 국제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교육 및 의료복지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정의 법률상담과 가족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은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 및 상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회복지의 제도적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청소년재단

URL: dreamyouth.or.kr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상임이사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6월 14일(화) 본교 B동 105호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한국청소년재단이 MOU 체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부총장, 이완형 입학처장, 사회복지학부 이문숙 학부장 등이 함께했으며, 한국청소년재단에서는 황인국 상임이사, 하성민 흥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박찬열 마포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등 주요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URL: kdrone.org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중 회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6월 22일(수) 본교 B동 105호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드론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과 이완형 입학처장, 정상원 교무처장, 이성태 문화콘텐츠공학과 학과장, 구국모 입학지원실장,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중 회장, 이영하 부회장, 김재진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허묘연 총장과 박석중 회장의 인사말로 두 단체의 앞날을 축복했다.

사단법인 새조위

URL: saejowi.org



사단법인 새조위 신미녀 상임대표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6월 29일(수) 본교 B동 105호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새조위 간 MOU 체결 협약식을 진행했다. 새조위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으로 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며 인류공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 박현석 부총장, 이은주 부총장, 이완형 입학처장,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 등이 함께했으며, 새조위에서는 신미녀 상임대표, 이지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듀오결혼정보

URL: duo.co.kr



듀오결혼정보 박수경 사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7월 26일(화) 본교 B동 105호 대강의실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듀오결혼정보 간 MOU 체결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과 정상원 교무처장, 전광호 학생처장, 한수미 교수 및 듀오결혼정보 박수경 사장, 장성운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 공동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반기 입학설명회 및 김홍진 명사 초청 특강 개최



▲ 특강을 진행 중인 김홍진 전 KT사장



▲ 입학설명 상담 부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신·편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입학을 희망하는 예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KT 사장을 역임한 김홍진 명사의 특강을 마련해 더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특히 혁신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됐다. 그는 “변화에 대한 거부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혁신을 통한 진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문화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의 선구자인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입학을 희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교육의 진일보를 위해 변화에 앞장서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입학설명회에서는 특강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닌 예비입학자들을 위한 1:1 상담 부스도 마련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상담부스를 통해 예비입학자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귀 기울여 듣고 조언을 해주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단순 입학설명회가 아닌 예비입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유익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나정혜 교수 피아노 독주회 개최



▲ 독주회를 개최한 나정혜 교수와 본교 교수들

매년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음악학과 나정혜 교수가 지난 7월 5일(화) 저녁 8시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성공적인 독주회를 개최했다. 독주회는 베토벤의 소나타 제30번, 코플랜드 피아노 바리에이션 등의 곡을 연주해서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나정혜 교수는 피바디움대(Peabody Conservatory of Music)와 동대학원(음악석사)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음악박사학위(DMA)를 취득한 바 있다. 매년 다수의 독주와 독주회 반주, 다양한 장르의 실내악 연주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WAVE 봉사단 IT 지식나눔 특강



▲ IT 지식나눔 특강을 진행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와 참여 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이 지난 6월 25일(토) A동 5층 스튜디오3에서 'Pro Bono IT 지식나눔 <스크래치>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중학교 의무교육 예정인 스크래치 코딩교육을 무료로 강의하였으며, 서른 명가량의 학생들이 열의 가득한 자세로 수업에 임했다. 스크래치는 이야기와 게임,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가 강의를 맡았으며,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정의부터 사이트 접속까지, 아이들에게 생소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하였다.

예술의전당 공연 관람



▲ 교직원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연장 전경

교직원들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을 꾸준히 실천해온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6월 23일(목) 예술의전당에서 국립발레단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공연 관람권을 지원해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발레 공연 중에서도 유쾌한 내용으로 꼽히는 <말괄량이 길들이기> 공연은 관람 교직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역별 재학생 모임



▲ 경기서부지역 MT 참여 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은 서로 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오프라인 지역 모임을 갖고 있다. 경기서부와 서울북부는 MT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의 일탈을 함께 느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샐러던트의 고됨을 말끔히 씻어냈다. 영남지역은 족구와 피구 등으로 심신을 단련했으며, 강원영동 지역은 한 학기를 마치는 것을 자축하는 종강 모임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마클 'BEER FESTIVAL' 개최



▲ 제2회 BEER FESTIVAL 참가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마라톤 클럽 동아리(이하 서마클)는 지난 7월 9일(토) 제2회 'BEER FESTIVAL'을 개최했다. 서마클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고자 맥주 페스티벌을 열어 동문과 재학생에게는 즐거움을, 불우이웃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회째로 열린 BEER FESTIVAL은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이 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삼삼오오, 외부전문가 특강 진행



▲ '삼삼오오' 특강에 참여한 청소년복지전공 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에서는 미래전망과 진로 탐색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인 '삼삼오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년에 세 번 분기별로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5월 21일(토)에 진행된 지난번 특강에서는 법무부 송화숙 서울소년원장이 <비행 및 일탈 청소년, 어떻게 대해야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가졌다.

강수진 단장 숙명여대 명예 박사 학위 취득



▲ 학위를 수여받는 강수진 단장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의 숙명여대 명예 박사 학위수여식에 허모연 총장을 비롯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학위수여식은 지난 6월 27(월)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역 예술인 가운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강수진 단장이 최초다.

정신장애인의 보금자리, 태화샘솟는집



▲ 사회복지학부 심선경 교수와 이희연 교수 및 탐방 참여 학생들

서울사이버대 학교 사회복지 학부에서는 감 리회 태화복지 재단 태화샘솟 는집을 방문해 사회복지 현장

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태화샘솟는집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삶에서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이다. 태화샘솟는집은 회원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주, 취업,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화샘솟는집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회원들과 가족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포부를 다져나가고 있다.

재학생을 위한 지역만남의 날 특강



▲ 광주캠퍼스에서 진행된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21일(토)부터 6월 25일(토)까지 지역만남의 날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들이 오프라인을 통해 학우들과의

교류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강은 지역별로 일시와 장소가 다르게 진행됐으며, 강사진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전임교수들로 꾸려졌다. 특강 주제는 테크노 인문학, 투자세상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음식 심리학 등 재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7개였다. 그중 6월 17일(금)에 서울사이버대학교 광주캠퍼스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전공 박형원 교수의 'MBTI위크샷; 내마음 들여다보기' 특강은 순천, 목포 등 호남지역 학생들 40여 명이 참석해 자신의 성격유형과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산캠퍼스에서 진행된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의 '음식 심리학은 전쟁 당시의 음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음식 등 흥미로운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경숙 석좌교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방송



▲ 음악학과 이경숙 석좌교수

〈피아노〉를 통해 전해졌다. 6.25 특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어린 피아니스트 시선으로 바라본 전쟁의 비극'은 전쟁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 교수가 피아노를 통해 자신과 사람들이 위로받았던 치유의 시간에 대해 그렸다. 이경숙 교수는 전쟁 동안 지금도 악몽을 꿀 정도로 끔찍한 상황을 겪었지만, 음악이 있었기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기예 힘입어 이례적으로 6월 29일 밤 11시 40분에 재방송되었다.

SCU 독서클럽 'Book's WAVE'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를 유도하고 학습 기본 역량을 향상하고자 SCU 독서클럽 'Book's WAVE'를 5월 말부터 7월까지 1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 SCU Book's WAVE 카페 화면

운영한 독서클럽은 운영자가 주제를 게시하고 댓글 형식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 방식과, 게시된 원문에 각자의 해석을 댓글로 다는 필사방식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도서는 SCU 추천도서 100권 중 김한웅 운영교수(상담심리학과)의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독서클럽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속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차 독서클럽 참여 학생이 향후 운영자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독서클럽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교수동정



구희정 교수

군인가정을 위한 사이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는 2016년 6월 30일에 열린 부모교육학회에서 발간한 『열린부모교육연구』 제8권 2호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군인가정 어머니를 위한 사이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권구순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논문 게재 및 발표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2016년 4월 30일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발간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8권 1호에 「성인대상 이러닝기반 국제개발이해교육의 인지적-태도적 학습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공동(주저자)으로 게재하였고 동 학회에서 6월 17~18일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국제인도적 구호활동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권금주 교수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실태 논문 발표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는 2016년 5월 25일 대한노인병학회 제2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6월 28일 대구광역시와 대구남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최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날 기념식 및 세미나에서 '노인복지 생활시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동환 교수

부동산전자계약 관련 논문 발표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사)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4권 제1호(통한 42호)에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의 중개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동환 교수는 또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미주 교수

제 14대 한국학교보건학회 제1부회장 선임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는 2016~2017년 임기로 제 14대 한국학교보건학회 제1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김영민 교수

물류 학술지 중요도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물류학회지 제26권 제2호에 「해외 물류 관련 학술지의 중요도 및 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으로 게재했다.



김요완 교수

현장중심의 가정폭력과 상담 저서 출간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는 2015년 12월 15일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와 상담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의 가정폭력과 상담〉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김지연 교수

부모들의 온라인 게임 인식 개선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2016년 6월 30일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에 「부모들의 온라인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개입 전략 : 온라인 게임 인식 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저자)으로 게재했다.



김지영 교수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는 2016년 5월 30일 한국건강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현아 교수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6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비교한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캡의 내적 요인으로서 장애인식과 태도」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교수동정



박병석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전문평가단 평가위원 위촉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6월 21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전문평가단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7월에 대학출판부협회 발행 서평집 <시선과 시간>에 김영진 저 <중국, 대국의 신화>에 대한 서평 <대국의 원형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박태정 교수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인식연구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전공의 박태정 교수는 한국사회보장학회 여름호(2016. 6. 30)에 「베이비부머세대의 자기인식연구 : 퇴직 후 생활세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심선경 교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발표
복지시설경영전공 심선경 교수는 2016년 5월 20일 한국콘텐츠학회 2016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문숙 교수
북한이탈주민 학생 관련 주제 발표
사회복지전공 이문숙 교수는 지난 5월 20일 군산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콘텐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서영 교수
마음케어-종교와 의료의 통합 저서 출간
사회복지전공 이서영 교수는 2016년 4월 15일 「마음케어-종교와 의료의 통합」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성태 교수
어린이용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 관련 논문 발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6년 3월 30일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감성을 이용한 어린이용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2016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Spring 2016'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서 'Remember 2014!'라는 이름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우경 교수
직무 스트레스 관련 학술발표와 청소년 자해 관련 연구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6월 3일 직무스트레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사회관계망(SNS)의 발달과 직무스트레스」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했다. 또한 7월에 'Asian Journal of Psychiatry'에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lf-harming behavior in Korean adolescents」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정원 교수
군에서의 생명존중 관련 논문 발표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2016년 5월 20일 생명문화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군에서의 생명존중 교육과 프로그램의 실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향아 교수
국제적 디자인 컨퍼런스에 관련 작품 발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6년 6월 29일 일본 도도대학교에서 개최한 2016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하계국제디자인컨퍼런스에서 '공존(共存)'을 주제로 작품을 출품했다. 또한 2016년 7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16부산국제디자인제에 「식(食) 문화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했다.



임정선 교수
재난과 심리외상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임정선 교수는 2016년 4월 15일 한국입법정책학회 제44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재난과 심리외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전호진 교수
중국기업 관련 논문 및 게임산업 투자 관련 논문 발표
세무회계학과 전호진 교수는 2016년 2월 29일 한국무역학회에서 「중국기업의 해외 IPO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2016년 3월 30일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국내 「게임산업 외국인 투자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홍선관 교수
다면적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에 대한 논문 발표
부동산학과 홍선관 교수는 2016년 3월 15일 한국디지털정책학회에서 「다면적 주거환경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Seasonal Culture

빛나는 여름,
SCU가 제안하는 문화 나들이

도서

온전히 나답게 - 인생은 느슨하게 매일은 성실하게



저자 : 한수희
출판사 : 인디고(글담)

맹렬한 무더위가 한풀 꺾인 요즘, 소홀했던 자신에게 시원한 위로를 건낼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책 한 권을 소개한다. <온전히 나답게>에는 주어진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려나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고민과 생각, 크고 작은 다짐이 오롯이 담겨있다. 작가는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필치를 통해 '나다운 삶'을 잃지 않고자 진솔하게 살아낸 삶의 기록들을 공유한다. 삶이 어지럽다고 느껴질 때, 위대한 철학자의 거창한 말보다 진심을 담은 친구의 한마디가 더욱 와 닿을 때가 있다. 이 책은 그런 친구의 메시지를 꼭 닮은 책이다.

공연

앤서니 브라운展 - 행복한 미술관



기간 : 2016. 6. 25~2016. 9. 25
시간 : 11:00~20:00(매월 마지막 월요일 휴관)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기발한 상상력과 이색적인 작품으로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대규모 전시를 만나보자.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초기작에서부터 국내 미공개 신작을 포함한 원화 250여 점이 준비되어 있다. 총 10가지 섹션으로 꾸며진 전시에는 예술의 영역이 그림뿐 아니라 조형물과 영상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어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색다른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는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키네틱아트, 일러스트레이션, 페이퍼아트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펼쳐져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